



② 부여 무량사(無量寺)

꿈꾸다 죽은 늙은이 아직도 꿈을 꾸는가



극락전 옆의 목련이 봄 햇살에 부들고 있다.

“이제 목련이 피겠다.” 영산전 마당을 걸어 나오던 할머니가 함께 온 아이들의 발꿈치에다 한 마디 던진다. 아이들 걸음에 부풀기 시작한 목련의 그림자가 밝힌다. 겨우내 얼었던 석탑의 어깨 위에는 어제와 다른 햇살이 쌓이기 시작했다. 봄이 오고 있다. 부여의 무량사.

그 날도 봄날이었다. 1493년, 조선의 지성 김시습(金時習:1435~1493)은 이곳 무량사에서 자신의 마지막 글인 <법화경>의 발문을 쓴다. 그리고 봄비가 흠뻑리는 삼월에 그는 병든 몸을 미련 없이 벗고 육신의 생을 끝낸다. 우리 민족 최초의 한문소설집인 <금오신화>를 비롯해 시와 산문 등 수많은 글과 문집을 남긴 그는 자신의 이름이 꽃처럼 부풀기 시작했을 무렵에 돌연 세상을 등지고 방랑의 길로 들어선다. 권력 앞에 무너진 인륜과, 학문이 학문에서 끝나는 현실을 온몸으로 고음(苦吟)하며 그는 도포 대신 법의(法衣)를 입고 세상의 바깥쪽을 걷는다. 길었던 그의 방랑이 멈춘 곳이 무량사다.

무량사는 신라 문성왕(839~856) 시대에 범일 스님(810~889)이 창건한 절이다. 일주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도량을 그림처럼 보여준다. 천왕문을 지나 마당에 오르면 기품 있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도량을 굽어 보고 있고, 그 곁에 조선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는 극락

전과 백제의 시절을 간직한 5층석탑이 서있다. 격조 있게 떨어져 나간 단청의 여백을 봄별이 채우고, 아! 감탄사처럼 깨어나는 석탑의 상처 위엔 봄바람이 불어온다.

봄별이 아직은 짙다. 어느 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다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온다. 한 스님이 종각으로 간다. 저녁종소리도 서쪽 산을 넘어간다. 한 시대를 열려했던 김시습은 “나 죽은 뒤 내 무덤에 표할 적에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 써준다면 나의 마음 잘 이해했다 할 것이니 꿈은 뜻을 천 년 뒤에 알아주리”라고 ‘나의 삶’이란 시에서 읊었다. 종소리가 도량을 적시고, 마당 끝에서 백구가 귀를 세운다.

세상의 바깥에서 꿈을 꾸던 당대의 한 지성은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자신이 꿈꾸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가 몇이나 될까. 꿈꾸다 죽은 늙은이의 이름이 산문 밖 부도전에 걸려 있다. 아직도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그 옛날 아쉬웠던 봄이 다시 오고 있다. 세상의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꿈을 꾸고 있는 이라면 부여의 무량사에 다녀올 일이다. 꿈꾸다 죽었고 그리고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안타까운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꿈을 꾸고 있는가.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hollo@hanmail.net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거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빠르게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